

취업이 기혼여성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김 혜원, 김 명소

한영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취업이라는 경험은 기혼여성들에게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432명의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취업경험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 태도에 따라 상이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기본가정하에 주부들의 성역할태도와 관련된 3가지의 측면이 조사되었다. 즉,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여성의 특정한 사회적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자녀생산, 특히 아들생산과 관련된 2가지 요인(주부 자신이 아들에 대해 갖는 가치, 아들생산에 대한 주변의 압력)이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구체적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부들의 성역할태도는 취업,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들생산 관련요인에서는 두 집단간의 흥미로운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취업주부와 비교하여 전업주부는 아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아들생산에 대한 주변의 압력을 더 많이 느낄수록 더 낮은 심리적 안녕을 경험하거나 우울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이라는 경험이 주부들에게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심리적 완충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역할중대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여성의 취업인구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료에 의하면, 1980년에서 1996년 사이에 남성의 취업은 76.4%에서 76.1%로 감소한 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여성의 취업은 42.8%에

서 48.7%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여성개발원, 1997). 이러한 현상 속에서 직업세계는 더 이상 금녀(禁女)의 세계가 아니고, 따라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들의 심리적 경험을 설명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즉, 일은 여성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어떠한 의미 속에서

일을 선택했을 때 여성들은 일을 통해 실제적, 심리적 이득 또는 상실을 경험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다루면서 취업이 여성에게 미치는 심리학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2가지의 상반되는 결과들을 축적해오고 있다. 그 한 갈래인 '결핍가설(scarcity hypothesis)'에서는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늘어나면 그것은 스트레스나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role overload)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반면, '증대 또는 확대 가설(enhancement or expansion hypothesis)'에서는 부과된 많은 역할들은 개인의 자존심, 주체성,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에너지 자원을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한편, 여성과 취업의 문제를 담당해야 하는 '역할 크기나 수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던 종래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최근 몇몇의 연구자들(예: Baruch, Biener, & Barnett, 1987)은 여성 취업 연구에 있어 중시되어야 할 것은 여성과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요인들 그리고 그 요인들의 상호작용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 아래의 논의를 근거로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여성들이 갖는 태도, 즉 성역할태도에 따라 여성취업의 심리적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취업 vs. 성역할태도 vs. 심리적 결과

일반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참여는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제한되어 왔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직업', '여성=가정'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적 배경(김양희, 1995)속에서 이 공식을 벗어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취업여성)은 '이탈된' 집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가정운영과 자녀양육이 주된 역할로 강조되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들에게 있어 일은 남성이

나 미혼여성 집단과 달리 자연스러운 발달심리학적 과정의 일부분이 아닌 신중한 "선택"인 것이다.

특히, 남녀의 사회적 역할분리가 전통주의적 구조(남편은 직업을 갖고 부인은 가정을 돌봄)에서 평등주의적 구조(남편과 부인이 직업생활, 가정생활 역할을 함께 공유함)로의 전환기인 신전통주의적 구조(남편과 부인이 모두 직업생활을 하되 부인은 직업생활과 함께 가정생활도 전적으로 책임짐)(Adams, 1980, 임정빈, 정혜정, 1997 재인용)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임정빈, 정혜정, 1997)에서 기혼여성들에게 있어 취업은 더욱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신전통주의적 역할구조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취업주부들이 직업과 동시에 가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있고, 전업주부나 취업주부에게서 공통적으로 남편의 가사노동 역할분담률은 12%에 머무르고 있음(박숙자, 1992)을 감안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기혼여성에게는 남녀의 엄격한 역할분리에 대해 본인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가 그들의 정신건강을 설명하는데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성역할태도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태도(Pleck, 1985)로 이에 대한 전통적, 진보적인 정도를 말한다. 여성취업과 성역할태도, 그리고 정신건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적인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취업주부들은 전업주부에 비하여 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erre, 1980 in Parry, 1987). 또한, 취업주부들이 갖고 있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는 이들의 정신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Marshall과 Barnett(1993)의 연구에서는 자녀를 두고 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취업주부들은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취업주부들에 비해 가정-일 역할에서의 주관적 이득

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취업주부들은 전통적인 태도를 지닌 취업주부들과 비교하여 우울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Keith & Schafer, 1982).

성역할태도와 취업, 전업주부들의 정신건강간의 관계는 Parry(1987)의 연구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바 있다. 160명의 취업주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주부들은 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적은 정신의학적 증세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가장 불안감을 많이 표현한 그룹은 취업주부중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집단과 전업주부중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집단이었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다. 263명의 취업주부와 295명의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김혜원(1996)의 연구에서 기타의 사회구조적 변인들(연령, 교육연한, 가족총수입, 자녀의 수, 자녀의 성별, 자녀의 평균연령, 가족구조)을 모두 통제한 가운데 성역할태도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정신건강에 상이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경우는 더욱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갖을수록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고한 반면, 전업주부들은 더욱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갖고 있는 내면적 태도와 현재 자신이 임하고 있는 역할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는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성취업 vs. 남아선호사상 vs. 심리적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태도의 보다 구체적인 면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특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여성들이 갖는 태

도를 또 다른 하나의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즉,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 중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자녀 생산, 특히 아들출산여부에 여성들이 부여하는 가치가 여성취업의 심리학적 영향력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변화속에서도 '아들생산'이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여성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로 강조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극단적인 하나의 예는 우리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성비(sex-ratio)의 불균형 현상이다. 여자 백 명 당 남자의 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자연상태에서의 출산시 보통 104에서 106명 정도를 보이다가 만 2세가 되면서 남아의 높은 영아사망률로 인해 100:100의 균형상태를 이룬다(이재순, 1997).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유교문화권(한국, 중국, 대만 등)에서는 균형이 깨어져서,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현재 출생시 남녀 성비가 11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여성개발원, 1997). 이러한 불균형은 1980년대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여성개발원, 1997) 이는 적어도 한 명의 아들을 바라는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과 소규모 가족에 대한 선호가 맞물려지면서 성감별 낙태라는 해결책을 통해 양산된 결과(이재순, 1997)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원하던 딸을 출산한 경우가 아니라 원하던 아들을 출산한 경우만이 자녀성별 만족도가 주부자신, 남편, 시댁식구 모두의 생활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박숙자, 1992)를 통해 우리나라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남아선호의식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남아선호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한 의미를 여전히 아들출산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여성의 일차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역할은 아들을 낳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변화속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남아선호는 과거와 비교하여 노후의지나 가계계승과 같은 가시적

인 근거는 현저히 약해졌지만, 아들을 낳음으로써 가정내에서 여성이 차지하게 되는 상징적인 힘과 심리적인 지위는 여전히 의미있는 측면으로 자리잡고 있다(한성열, 1993).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갖는 남아선호는 공식적 가족윤리에서 파생되었기보다는 여성들의 지위획득을 위한 사회적 생존, 성취와 직결되어 있고(조혜정, 1986), 여성은 아들을 낳음으로써 지위향상을 경험한다(최재석, 1982)는 지적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취업과 남아선호의식은 어떠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관심의 근거는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김혜원, 1996)에서 찾아볼 수 있다. 558명의 취업,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주부들은 그들이 아들을 두었는가, 딸을 두었는가, 혹은 아들딸을 함께 두었는가에 따라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흥미롭게도 전업주부들의 경우에는 아들만 가진 집단이나 아들딸을 함께 가진 집단(즉, 최소한 한 명의 아들을 가진 집단)에 비하여 딸만 가진 집단이 유의하게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분석에서 취업주부에게는 직업의 종류가 그들의 심리적 안녕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반면, 전업주부에게는 자녀의 성별이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아쉽게도 여성의 취업과 자녀의 성별을 연결하여 살펴본 연구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서구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 혹은 자녀성별에 대한 만족도가 주부들의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가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들이나 딸이나를 중시하지 않는 그들의 사회적 분위기와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다. 다만, 본 연구의 관심과 반대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극소수의 연구들은 엄마의 취업은 아들에게보다는 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다(예: Hoffman, 1989; Crockenberg & Lietman, 1991).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녀의 성별을 취업여성의 심리적 경험과 연결지어 살펴본 연구들은 많지 않다. 먼저, 가족의 주기중 자녀양육기(첫 자녀의 나이가 만 1세-7세)에 해당되는 총 322명의 부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박숙자(1992)는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중단경험 여부, 남편의 첫 자녀 양육참여에 대한 기대 충족도와 함께 원하던 성으로서의 아들에 대한 만족도가 주부들뿐 아니라 남편, 시댁식구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취업주부, 전업주부를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변인에 대한 두 집단간 차이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성감별 낙태의 의사결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태도와 주관적 사회규범 중 전자의 중요성을 밝힌 이재순(1997)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의 대상으로 삼았던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사이에 어떤 차이를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자녀의 수와 성별을 함께 살펴본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1991)의 연구에서는 흥미롭게도 둘 이상의 자녀를 두거나 아들딸을 함께 둔 취업주부들은 한 자녀를 두거나 동성의 자녀들을 둔 취업주부들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자녀가 아들인 경우에는 딸인 경우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은 덜 느끼지만 심리적 피로감은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후분석이나 원인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미약한 결과속에서, 자녀성별에 대한 만족도 혹은 남아선호도가 주부의 취업 여부와 관련을 맺으면서 이들의 정신건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검증되어야 할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바는 직장과 가정일이라는 두 가지의 사회적 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 취업주부에 비해 가정일 만을 담당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남아선호도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소개된 역할이론들 중 중대가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취업주부의 경우는 사회가 요구하는 아들출산에 대한 압력을 일이라는 다른 역할수행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반면, 보수나 직위 등의 객관적 획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가정생활 내에서의 성취가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따라서 남아선호에 대한 주변의 압력에 노출될 경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아쉽게도 이에 대한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다만, 남아선호에 대한 주변압력의 중요성을 시사하면서 김혜원(1996)의 연구에서는 전업주부들이 취업주부들에 비해 부계확대가족(남편의 부모 또는 형제와 동거)에 살고 있는 비율이 높고, 따라서 취업주부가 아닌 전업주부들만이 자녀성별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들에 대한 가치평가를 시댁식구들로부터 더 빈번히 혹은 더 강도 높게 전해 받았기 때문이라는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이상의 논의와 선행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취업의 심리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그 영향력에 대한 성역할태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주부의 취업여부와 성역할태도의 상관성이 이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바를 취업주부집단과 전업주부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살펴보아 취업이 기혼여성에게 주는 심리학적 의미의 일면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남녀의 전반적 사회역할에 대한 태도와 두 번째로 여성의 구체적 역할(아들출산)에 대한 태도가 갖는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아들출산에 대한 고찰은 다시 두 가지의 변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주부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남아선호

의 영향력으로서 그들이 딸에 비해 아들의 가치를 크게 여기는 정도(아들선호도)에 대해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남아선호의 외부적 영향력으로서 자녀의 임신 출산시 자녀성별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받은 압력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취업, 전업주부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태도는 각 집단의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둘째, 취업, 전업주부들이 딸에 비해 아들을 선호하는 정도는 각 집단의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셋째, 취업, 전업주부들이 느끼는 자녀성별에 대한 주변의 압력은 각 집단의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연구 방법

대상 및 절차

대상은 결혼을 했고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둔 주부들로 선정하였다. 취업주부는 현재 어떤 종류의 소득있는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전업주부는 현재 임금을 위한 어떤 사회적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 전업주부를 말한다. 이들은 학교, 교회, 회사, 지역 사회 등의 통로를 통해 접촉되었고, 예비조사를 거쳐 부분수정이 이루어진 총 600부의 설문지를 1998년 5월부터 6월의 기간동안 배부 회수하였다. 최종적으로 168부의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한 432명(취업주부 222명, 전업주부 202명)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도구

1) 사회구조적 변인

사회구조적 변인으로 연령, 최종학력, 가족 월 수입, 자녀평균연령, 자녀성별, 직종(취업주부의 경우만)이 조사되었다. 자녀의 성별은 아들만 있는 경우, 아들딸이 있는 경우, 딸만 있는 경우의 3가지로 나뉘어졌다. 직업의 종류는 선행연구들(Stevenson & Hoisington, 1987; 고은숙, 1992; 대한통계협회, 1992; U. S. Department of Commerce, 1994)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생산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전문관리직, 기타로 분류되었다.

2) 성역할태도

주부들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분리에 대해 갖는 전통적 vs. 진보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역할태도척도(Gender-Role Attitudes Scale: GRAS)가 사용되었다. GRAS는 정종희(1983)가 Sex-Role Orientation(SRO, Osmond & Martin, 1975)과 Sex-Role Ideology Scale(SRI, Mason & Bumpass, 1980)의 문항들 중 선정하여 표준화과정을 거쳐 제작한 척도이다. GRAS는 가정역할, 직업역할, 성격 및 행동에 관한 고정관념이라는 3분야와 관련하여 성역할태도의 전통, 진보 정도를 특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21개의 GRAS 문항 중 예비조사 결과 내적일치도가 낮은 6문항을 제외한 15문항이 사용되었다(예: '여성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고 남성은 바깥일을 하는 것이 좋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으며, 높은 점수는 더욱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GRAS의 내적일치도는 $\alpha = .83$ 이었다.

3) 아들선호도

아들선호도는 주부들이 딸에 비해 아들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먼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의 10문항을 통해 주부 자신이 아들에 대해 느끼는 의미나 가치 정도를 측정하였다(예: '아들은 집안

의 대를 이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역시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의 10문항으로 주부들이 갖는 딸에 대한 가치(예: '딸은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를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두 가치의 차이값(아들가치 - 딸가치)에 의해 아들선호도가 산출되었고, 높은 점수는 딸에 비해 아들의 가치를 높이 두고 딸보다 아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들가치와 딸가치에 관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먼저, 예비조사에서 각각 아들과 딸이 자녀로서 갖는 가치나 의미에 대한 자유응답을 받았다. 여기서 채택된 각 30개의 진술문에 대해 전문가(심리학 전공자 2명과 연구자)들이 안면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1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30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를 산출하여 최종 10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들가치에 대한 내적일치도는 $\alpha = .86$ 이었다. 딸가치에 관한 문항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alpha = .83$ 이었다.

4) 자녀성별에 관한 주변의 압력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을 때 주변사람들(시부모, 친정부모, 남편, 친지나 이웃 등)로부터 자녀성별과 관련하여 주부들이 어느 정도의 압력을 느꼈는가가 15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문항은 아들선호도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는데, 예비조사에서의 40개 자유응답에 대하여 전문가의 안면타당성 검토와 1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내적일치도 검증이 이루어졌다. 문항들(예: '내가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을 때, 주변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자녀의 성별을 내게 말하곤 했다')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았다, 5: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어 높은 점수일수록 주부들이 자녀성별과 관련하여 주변사람들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

타난 내적일치도는 $\alpha=.90$ 이었다.

5) 정신건강

주부들의 정신건강은 다음의 두 가지 척도로 측정되었다.

(1)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은 한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반 혹은 인생 전체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Andrews & Robinson, 1991, p. 61)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General Well-Being Schedule(GWB) (Fazio, 1977)이 사용되었다. GWB는 모두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자기 행동 평가에 대한 문항을 제외한 21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범위: 38-156). 이 12개의 문항들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혹은 뇌 전문가와의 면담'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판단과 예비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제외되었다. GWB의 한국말 번역을 위해서는 번역, 역번역의 과정이 사용되었다. 역번역된 문항들과 원래 문항들은 1차 검토에서 66.7%의 일치율이 나타났고, 2차 역번역의 과정에서 90.5%의 일치율을 보였다. 1, 2차 과정을 통해 일치되지 못한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는 연구자, 역번역자가 원래 문항과 역번역된 문항들을 함께 비교 검토하면서 최종 어휘들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GWB의 높은 내적일치도와 신뢰도(Fazio, 1977)가 보고되었으며, 다른 정신건강 특히 우울 척도와 높은 상관을 가졌음이 밝혀진 바 있다(Andrew & Robinson, 1991). 김혜원(1996)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는 각각 $\alpha=.83$, $\alpha=.93$ 이었다.

(2) 우울

주부들의 우울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Beck 우

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동기 및 행동적 증상에 상응하는 21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로서, 이미 기술되어 있는 4개의 진술문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 송종용(1991)이 표준화작업을 거쳐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내적일치도 $\alpha=.83$, 검사-재검사 신뢰도 $r=.75$ 였고, 일반 집단과 우울 집단간에 유의한 점수차이와 함께 다른 우울증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여 우울증을 변별하는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BDI의 내적일치도는 $\alpha=.89$ 였다.

결 과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비교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38.20세(취업주부: $M=37.71$, $SD=6.12$, 전업주부: 38.74, $SD=7.49$)였고, 월평균수입은 212.14만원($SD=104.56$)으로 월평균수입 241.90만원인 취업주부가 175.14만원인 전업주부에 비해 많았다($t=6.09$, $p<.000$). 학력수준은 두 집단 모두에서 고졸이 가장 많았고(취업주부: 52.9%, 전업주부: 51.5%), 다음으로 대졸자(취업주부: 33.2%, 전업주부: 36.8%)를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중졸(취업주부: 5.8%, 전업주부: 8.3%), 대학원졸 이상(취업주부: 4.9%, 전업주부: 2.0%), 국졸(취업주부: 3.1%, 전업주부: 1.5%)의 순이었다. 자녀의 평균연령은 10.82세(취업주부: 10.56, $SD=6.60$, 전업주부: 11.10, $SD=7.98$)였다. 두 집단에서 모두 아들딸을 함께 가진 경우가(취업주부: 39.0%, 전업주부: 44.1%) 아들만 가진 경우나(취업주부: 35.9%, 전업주부: 31.9%) 딸만 가진 경우(취업주부: 25.1%, 전업주

부: 24.0%)에 비해 많았다. 취업주부의 경우 전문관리직(39.6%)과 판매직(27.56%)의 직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서비스직(13.3%)과 기타직종(13.3%), 생산노무직(6.2%)의 순서를 보였다. 월수입을 제외하고 두 집단간에는 다른 사회구조적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역할태도는 취업주부(M=2.67, SD=.67)에 비해 전업주부(M=2.84, SD=.67)가 더 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8, p=.01$). 아들선호도에서 두 집단 모두 아들에 대한 가치보다 딸에 대한 가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취업주부: $M=-5.04, SD=8.46$, 전업주부: $M=-4.77, SD=8.78$),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자녀 성별에 대한 주변의 압력도 취업주부(M=2.16, SD=.81)와 전업주부(M=2.13, SD=.79)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에서도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심리적 안녕(취업주부: $M=80.76, SD=21.08$, 전업주부: $M=80.37, SD=20.58$)과 우울(취업주부: $30.97, SD=8.84$, 전업주부: $31.13, SD=7.94$) 모두 두 집단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 vs. 사회구조적 변인 vs. 정신건강

사회구조적 변인이 주부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각 집단에서의 효과를 따로따로 분석하였다. 먼저, 취업주부집단에서 모든 6개의 사회구조적 변인들(연령, 교육, 직종, 월수입, 자녀평균연령, 자녀성별)은 각 심리적 안녕과 우울을 예견하는 변인으로 동시에 회귀분석되었다. 그 결과, 변인들간의 상호관련성을 배제한 가운데 어떤 단일한 사회구조적 변인도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을 유의한 정도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함에 대한 분석에서는 변인들간의 상

호관련성이 배제된 가운데 직업의 종류만이 주부들의 우울정도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81, p=.001$). 추후분석결과, 서비스직 주부들(M=35.46)은 전문관리직(M=27.04)이나 기타(M=28.46) 직종의 주부들에 비해 더 우울을 느끼고, 판매직 주부들(M=33.95)도 전문관리직 주부들에 비해 우울을 더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여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종을 제외한 5개의 사회구조적 변인을 동시에 회귀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과 우울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구조적 변인 중 각 집단의 정신건강에 상이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변인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의 종류를 제외하고 두 집단에서 공통된 5개의 변인(연령, 교육, 수입, 자녀평균연령, 자녀성별)이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연령에 대한 분석에서는 나머지 사회구조적 변인들과 연령, 집단(취업주부, 전업주부), 집단-연령간 상호작용이 회귀분석의 틀 속에 넣어졌다. 나머지 변인들에 대한 분석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어떠한 변인도 두 집단간의 심리적 안녕과 우울함에 다른 정도의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 vs. 성역할태도 vs. 정신건강

첫 번째 연구문제인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 어떠한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그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자의 주된 관심은 응답자의 사회구조적 변인에서의 차이점에 근거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부들이 가진 성역할태도가 그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갖는 설명력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분석에 있어 모든 사회구조적 변인들의 영향력은 통제되었

다. 먼저, 심리적안녕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통제 변인인 5개의 사회구조적 변인을 가장 먼저 회귀 분석하고, 다음으로 집단, 성역할태도, 집단-성역할태도간 상호작용이 동시에 분석되었다. 동일한 방법이 우울함에 대한 분석에서도 사용되었다.

그 결과, 모든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통제한 가운데 성역할태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심리적 안녕과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는 했지만(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높은 심리적 안녕), 집단, 집단-성역할태도간 상호작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우울함에 대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집단의 주부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우울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나, 다른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효과는 아니었다.

여성취업 vs. 아들선호도 vs. 정신건강

1) 자신의 아들선호도에 따른 영향

두 번째의 연구문제 즉, 아들에 대한 선호정도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정신건강에 어떤 상이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심리적 안녕을 예견하는 변인으로 통제변인인 5개의 사회구조적 변인들이 회귀분석되었고, 다음으로 집단, 아들선호도, 집단-아들선호도간 상호작용이 함께 분석되었다. 그 결과, 사회구조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가운데 집단, 아들선호도, 집단-아들선호도간 상호작용은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을 설명하는데 모두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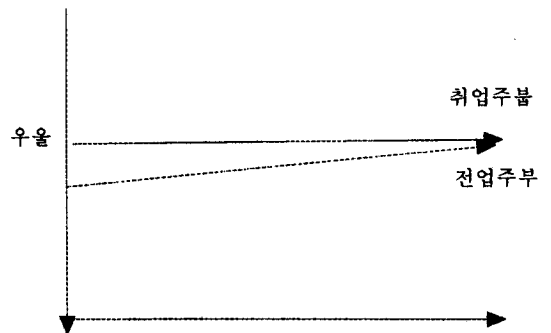
반면,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에서는 아들선호도가 집단간에 상이한 효과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위에서와 동일한 회귀분석 결과,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통제한 가운데 우울의 정도에는 집단과 아들선호도 변인의 주효과가 없었다. 반면, 집단-아들선호도간 상호작용에서는 경계선적

인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표 1). 이를 추후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부분이 밝혀졌다. 즉, 취업주부들은 아들을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 그들이 느끼는 우울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전업주부들은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정도가 클 때 더욱 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49, p=.006) (그림 1).

<표 1>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통제한 가운데 아들선호도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변 인	우 울	
	beta	SE
연령	-.173	.155
교육	-.080	.126
월수입	-.081	.047
자녀연령	.195	.148
자녀성별	-.013	.603
집단	.059	1.065
아들선호도	-.209	1.603
집단X아들선호도	.338*	1.042

R²=.053
F(8,432)=2.168



<그림 1> 주부들의 취업여부에 따라 아들선호도가 우울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사회구조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배제한 이상의 결과와 달리, 다음으로 전업주부중 어떠한 사회구조적 특성을 지닌 집단이 아들선호도에 따라 정신건강에 더욱 많고 적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아들선호도에 따라 정신건강이 달라지는 것은 또한 전업주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심리적 안녕과 우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기타의 사회구조적 변인을 먼저 회귀분석의 틀 속에 넣었고 다음으로 연령, 아들선호도, 연령-아들선호도간 상호작용을 동시에 회귀분석하였다. 교육정도, 월수입, 자녀연령, 자녀성별에 대한 분석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연령, 수입, 자녀평균연령에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타 사회구조적 변인에서의 차이점을 배제한 후 전업주부들은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낮은 정도의 심리적 안녕을 경험하지만, 이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든 주부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R^2 -change=.040, p =.019). 우울함에 대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업주부들은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더 우울을 경험하며 이는 나이가 많은 전업주부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R^2 -change=.063, p =.003). 또한, 가정의 월수입과의 관계에서는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더 우울을 경험하지만 이는 월수입이 많은 전업주부보다는 월수입이 적은 전업주부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었다(R^2 -change=.058, p =.004). 마지막으로, 아들선호도가 전업주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평균연령과도 관계가 있어서, 자녀의 연령이 높고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클수록 낮은 정도의 심리적 안녕을 경험하고 (R^2 -change=.046, p =.012), 더 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R^2 -change=.069, p =.001).

2) 주변압력에 따른 영향

세 번째 연구문제인 자녀성별에 대한 주변의 압력이 취업주부, 전업주부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상이한 영향력을 갖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 심리적 안녕과 우울함에 대한 분석에서 통제변인인 사회구조적 변인이 먼저 회귀분석되었고, 다음으로 집단, 압력, 집단-압력간 상호작용이 분석되었다. 그 결과, 심리적 안녕에 대한 분석에서 압력에 대한 주효과와 집단-압력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표 2). 추후분석 결과,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 자녀성별과 관련하여 주변으로부터 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낮은 정도의 심리적 안녕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압력의 부정적인 영향은 전업주부에게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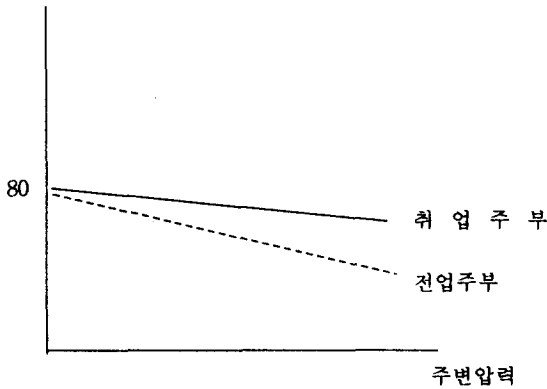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결과는 우울함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통제한 가운데 압력의 주효과와 집단-압력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추후분석을 통하여 이는 주부들이 주변으로부터 자녀성별에 대한 압력을 더 받을수록 더 우울을 느끼고, 이러한 경향은 취업주부보다 전업주부에게서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3).

<표 2>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통제한 가운데 자녀성별에 관한 주변압력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beta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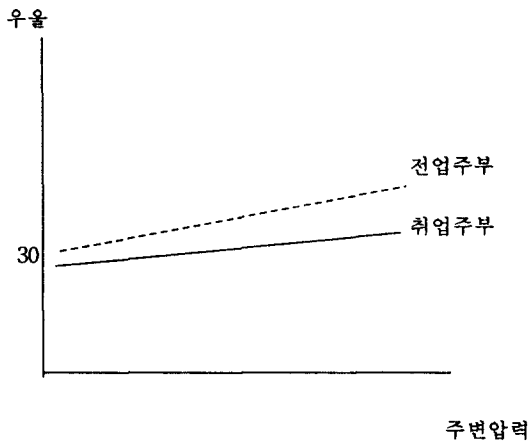
변 인	심리적 안녕	우 울
연령	.209	-.196
교육	.211	-.083
월수입	.015	-.084
자녀연령	.003	.255
자녀성별	-.275	-.024
집단	-.016	.001
압력	-.126*	.166**
집단X압력	-.117*	.121*
	R^2 =.027	R^2 =.059*
	$F(8,432)=1.041$	$F(8,432)=2.406*$

* $p < .05$ ** $p < .01$

이상의 결과에 대해 각 취업주부, 전업주부중 어떠한 사회구조적 변인을 지닌 대상들이 자녀성 심리적안녕



<그림 2>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성별에 관한 주변압력이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그림 3>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성별에 관한 주변압력이 주부들의 우울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별에 관한 주변압력에 의해 정신건강의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취업주부의

경우 나머지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통제한 채 연령과 주변압력의 상호작용이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과 우울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제변인으로서 기타의 사회구조적 변인을 먼저 회귀분석하고 다음으로 연령, 압력, 연령-압력간 상호작용이 동시에 분석되었다. 다른 사회구조적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동일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학력과 자녀의 평균연령이 취업주부의 우울과 주변압력의 관계에서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변으로부터 자녀성별과 관련되어 더 많은 압력을 받을수록 취업주부들은 더 우울을 경험하지만, 이는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R^2 -change=.021, $p=.047$). 또한, 자녀성별에 대한 주변압력은 자녀의 평균연령이 높은 취업주부들의 경우에 더욱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서 이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change=.039, $p=.006$).

전업주부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령과 자녀연령이 심리적 안녕과 우울 모두에서 주변압력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즉, 자녀성별에 대한 주변의 압력은 전업주부로 하여금 낮은 정신건강을 경험하게 하고 더 우울을 느끼게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는 나이가 젊을수록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심리적 안녕: R^2 -change=.040, $p=.019$, 우울: R^2 -change=.030, $p=.041$). 또한, 주부자신의 연령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면서, 전업주부들 중 나이가 젊은 주부들은 나이가 많은 주부들에 비해 자녀성별과 관련하여 주변으로부터 더 큰 압력을 받을 때 더 낮은 심리적 안녕을 경험하고(R^2 -change=.033, $p=.032$) 더 우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 -change=.046, $p=.011$).

각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

'본 연구는 취업이 여성에게 주는 심리적 의

미를 여성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태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주부의 취업여부와 성역할태도의 상관성이 이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바를 취업주부집단과 전업주부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살펴보고 취업이 기혼여성에게 주는 심리학적 의미의 일면을 밝히고자 했다. 주부들의 성역할태도는 일반적인 성역할태도와 특정역할인 아들출산에 대한 태도 두 가지를 통해 고찰되었다.

먼저, 사회구조적 변인이 취업과 그 심리적 결과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검토된 모든 변인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업주부에서 직업의 종류가 주부들이 경험하는 우울함에 유의한 효과를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든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전업주부에서는 어떠한 사회구조적 변인도 정신건강을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취업주부는 직종에 따라 상이한 정도의 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에게서 직종의 심리학적 중요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로, 상이한 직업이 갖는 다양한 직업지위, 임금, 피로도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서비스직과 판매직 여성들이 전문관리직의 여성들에 비해 더욱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월수입을 포함한 기타의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통제된 후 밝혀진 결과임을 감안할 때, 이는 직종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른 차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첫 번째 연구문제인 일반적 성역할태도가 취업, 전업주부의 정신건강과 갖는 관련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에게는 진보적인 태도, 전업주부에게는 보수적인 태도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는 두 집단 모두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한 결과 성역할태도의 중요성이 나타났는데 그 방향성은 과거의 결과들과 다르지 않았다. 즉, 취업주부와 달리 전업주부는 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더 나은 심리적 안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본인이 남녀의 엄격한 사회적 역할분리에 찬성하고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 국한하는 태도를 가지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현재의 역할(전업주부)을 수행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누린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아들선호도가 여성취업의 심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분석에서는 몇 가지의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딸에 비해 아들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 즉, 아들선호도는 주부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들의 정신건강과 다른 관계를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취업주부에게는 아들선호도가 정신건강과 관련이 없는 반면, 전업주부들은 아들을 딸에 비해 더 선호할수록 더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에게 있어서 아들선호도의 중요성은 모든 변인들을 함께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나 이 집단의 우울을 예견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일까? 이 결과는 모든 사회구조적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된 가운데 얻어진 것이므로 두 집단간에 존재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변인의 차이(자녀성별을 포함)에 따른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반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 갖고 있는 일반적 성역할태도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결과에서 밝혔듯 전업주부들은 취업주부들에 비해 유의할 정도로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진보적인 취업주부들에게는 아들이나 딸에 대한 선호도가 그들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는 반면, 전통적인 태도를 지닌 전업주부들은 자녀성별에 대한 태도가 이들의 정신건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두 집단의 주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상이함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논문의 서두에서 밝힌 중대적 역할가설의 지적에서처럼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와 달리 직업과 가정일이라는 상이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따라서 주로 가정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자녀성별, 아들 선호도는 이들이 직업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아들선호도가 주부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취업이 일종의 방패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연구의 다른 결과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었다. 즉,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 주변사람들로부터 자녀성별과 관련하여 더 많은 압력을 받을수록(대부분 아들출산에 대한 압력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임) 더 우울을 경험하지만, 이는 취업주부보다 전업주부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이 느꼈던 주변의 압력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자녀성별에 대한 객관적 압력이 같다고 하여도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주부들은 이에 따라 정신건강에 더 나쁜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이상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인과 관련지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주부들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과 우울이라는 두 개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는,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이나 행복과 같은 일반적인 정신건강의 측면과 우울이라는 임상적 정신건강의 측면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심리적 안녕보다는 우울에서 두 집단간 차이나 변인의 영향력이 많이 밝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성역할태도가 여성취업의 심리적 결과와 갖는 관계는 일반적인 정신건강의 측면보다는 임상적 차원에서 더욱 두

드러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이다. 둘째로, 성역할태도의 한 측면으로서 아들선호도와 이에 대한 주변의 압력이 변인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변인들이 여성의 특정 사회적 역할의 일례로 선택되기에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취업의 정적 부적인 심리적 결과는 여성이 갖고 있는 성역할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원인이나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의 틀은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층면접이나 더 주의 깊은 변인설정이 이루어진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시사된 결과들에 대한 보다 분명한 원인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고은숙(1992). 취업부인의 스트레스,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1995). 여성지위의 실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심리기제: 남녀간 경제적 권리의식 및 커리어 의식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48, 93-118.
- 대한통계협회(1992). 한국표준직업분류. 서울: 통계청.
- 박숙자(1992). 첫 자녀 출생과 부부관계의 변화.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정중희(1983). 어머니의 성역할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개발원(1997). 1997 여성통계연보. 서울: 여성

- 개발원.
- 이종한(1993). 남자와 여자 생산직 및 관리직 종사자의 분배원리 선호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245-253.
-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1991). 기혼 취업 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직업생활 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 이영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이재순(1997). 성감별 낙태의 의사결정과정.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93.
- 임정빈, 정혜정(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 조혜정(1986).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 한국 가족의 경우. *한국여성학*, 2. 서울: 한국여성학회.
- 최재석(1982).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한성열(1993). 한국가족의 형태와 발달의 과제.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 45-60,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서울: 한국심리학회.
- Andrews, F. & Robinson, J. (1991).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 1. San Diego: Academic Press, Inc.
- Baruch, G. K., Bierner, L., & Barnett, R. C. (1987). Women and gender in research on work and family stress. *American Psychologists*, 42(2), 130-136.
- Crockenberg, S. B. & Litman(1991).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maternal and two-year-old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2, 930-953.
- Fazio, A. F. (1977). *A concurrent validation study of the NCHI general well-being schedule*. Hyattsville, MD: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 Hoffman, L. W. (1989).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2), 283-292.
- Keith, P. M. & Schafer, R. B. (1982). A comparison of depression among employed single-parent and married women. *The Journal of Psychology*, 110, 239-247.
- Kim, H. W. (1996).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Korean Mothers in relation to Social Structural Variables, Attitudes, Role Qualities, and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in Boston University.
- Korabik K. McDonald, L. M., & Rosin, H. M. (1993).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g women managers. In B. C. Long & S. E. Kahn(Eds.). *Women, work, and coping: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workplace stress*. Montreal: McGill-Queen's Univ. Press.
- Marshall, N. L. & Barnett, R. C. (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 64-78.
- Parry, G. (1987). Sex-role beliefs, work attitudes and mental health in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 47-58.
- Pleck, J. H. (1977). The work-family role system. *Social Problems*, 24(4), 417-427.
- Pleck, J. H. (1985). *Working Wives / Working Husbands*. Beverly Hills: Sage.

- Stevens, G. & Hoisington, E. (1987). Occupational prestige and the 1980 U. S. labor force. *Social Science Research*, 16, 74-105.
- U. S. Department of Commerce(1994).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94*. Washington, DC: Bureau of the Census.

Psychological Effect of Employment on Married Women in Relation to the Women's Gender-Role and Son-Preference Attitudes

Hyewon Kim, Myoung-So Kim

Han Young Theological University, Hoseo University

What is the possible effects of employment on married women's psychological area? The present study tried to answer this question in surveying 432 employed and nonemployed married women. On the basis of the basic hypothesis that psychological effects of employment may differ according to the women's gender-role attitudes, the aspects of gender-role attitudes (general gender-role attitudes, value on son, pressure for son-reproduction) were examined as the preceding variables of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Results showed that general gender-role attitud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both employed and nonemployed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Meanwhile, interestingly enough, attitudes related to son-preference had nonidentical effects on both groups of women. Specifically, compared to employed group, nonemployed women with higher levels of son-value and of son-reproduction pressure experienced lower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or higher level of depression than did their counterparts.